

DE

메이드 인
팝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제1, 2 전시실 및 중앙홀
대중의 영웅
스펙타클의 사회
억압된 것들의 귀환
타인의 고통

MADE
IN
POPLAND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Gallery 1, 2 & Main Hall*

*The Heroes of the General Public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The Pain of Others*

OP
AND

albertz benda

515 w 26th st | new york, ny | 10001
tel 212.244.2579 | www.albertzbenda.com

오다니 모토히코 小谷元彦 (1972)

교토 출생

도쿄예술대학 조각과 학사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조각과 석사

오다니 모토히코는 대학시절의 목조각에서 보여준 섬세한 디테일에 박제, 모피, 혈액 등 신체감각과 연관 있는 소재를 사용한 그로테스크함이 더해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박제된 늑대의 머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모피 드레스 작품 〈Human Lesson〉(1996)을 시작으로 악기연주용 기구를 이미지화 한 〈Fingerspanner〉(1998) 등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통증이나 공포를 포함한다. 다소 폭력적이면서도 컬트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오다니의 작품은 조각에만 그치지 않고,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신체를 둘러싼 통증과 변이라는 주제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번에 전시되는 〈Rompers〉는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작가가 이전 작품에서 보여준 경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상작품이다.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는 소녀가 갑자기 혀를 내밀어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의 이 작품은 어른들이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용 대중매체 프로그램식의 유머를 보여준다.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영상과 CG를 통해 실제상황같이 만들어낸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리얼과 리얼하게 보이는 것의 융합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Whole Lotta Love〉는 전쟁과 죽음이라는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차용해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혹은 극히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쟁과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배경설치 및 CG 등을 이용한 기법 등에서 드러나는 시각적인 임팩트는 작가가 가지는 특유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Rompers

2003

/

DVD

2 min. 52 sec.

작가 소장

Artist

Music by Pirami

© ODANI Motohiko

Courtesy of YAMAMOTO GENDAI

ODANI MOTOHIKO (1972)

Born in Kyoto, Japan

Department of Sculpture,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ODANI adds the element of grotesqueness to that of detailedness, which characterizes his wooden sculptures made during his college years, while utilizing the materials related to bodily senses such as stuffed objects, fur and blood. In his works beauty is mixed with somewhat violent or cultic elements including pain and fear: *Human Lesson* (1996) consists of a fur dress with a stuffed wolf's head with sharp teeth; *Fingerspanner* (1998) shows an image of a musical instrument. ODANI's work is not confined to the art form of sculpture but employs a variety of mediums including photography and video art. Nevertheless, his themes are coherently related to bodily pain and mutation. *Rompers* shown here contains childish humor that adults can never understand: a girl singing on a branch all of a sudden takes her tongue out to catch an insect. In this work in which events that no rational mind thinks that they are likely to happen are presented as if they were real by means of video images and computer graphics, ODANI attempts to unite the real and what looks like real. In *Whole Lotta Love* ODANI gives a paradoxical expression of the serious themes of war and death by appropriating scenes from a popular animation and thus making the viewer perceive it as a funny or everyday situation. ODANI's artistic uniqueness is intensified by the visual impacts generated by his use of remarkable background settings and computer graphics.





Whole Lotta Love

2005

/

레이저 프린트, 나무 프레임

Laser Print, Wood Frame

220 x 178cm (each) Triptych

작가 소장

Artist

© Sotsu Agency

© ODANI Motohiko

Courtesy of YAMAMOTO GENDAI

albertz benda

515 w 26th st | new york, ny | 10001

tel 212.244.2579 | www.albertzbenda.com



Whole Lotta Love
2005

디지털 프린트, 나무 프레임
Digital Print, Wood Frame
87 x 87cm (each) Diptych

작가 소장
Artist

ODANI Motohiko
courtesy of YAMAMOTO GENDAI

Whole Lotta Love
2007

디지털 프린트, 나무 프레임
Digital Print, Wood Frame
140 x 146cm

작가 소장
Artist

ODANI Motohiko
courtesy of YAMAMOTO GENDAI

